

염갈량 올린 ‘파격의 장정석’

〈SK 염경엽 감독〉

“이장석 꼭두각시” 편견 깨고 2연승
데이터 기반 ‘벌떼불펜’ 전략 통해
리그 감독 선임 트렌드까지 바뀌
전략가 염경엽 감독마저 “놀랍다”

‘바지감독’, ‘이장석 대표의 아바타’,
‘꼭두각시’

키움 히어로즈 장정석 감독(46)이 2016년 10월 27일 사령탑에 올랐을 때 쓴 아졌던 후평이다. 이상석 전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기 위해 코치경험이 없는 당시 장정석 운영팀장에게 감독을 맡겼다는 해석이 곁들여졌다.

3년 만에 평가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야구팬들은 최근 장 감독을 '사마징성'으로 부르고 있다. 제갈량에서 따온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의 별명 '염갈량'을 능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삼국지'의 마지막 승자 사마의가 야구감독 낙임에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장 감독은 현역시절 전문 원손대타, 외야 대수비 요원이었다. 야구에는 '외야수 출신은 감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투수기용, 수비전술, 티타임한 작전에 약하다는 이유다. 특히 장 감독은 현역 은퇴 후 감독이 되기 전까지 유니폼을 입지 않고 프런트로 활동했다. 처음부터 기대보다는 의문부호가 많았다.

그러나 2019년 가을 장 감독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야구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팀 성적뿐 아니라 KB O리그의 감독 선임 트렌드 변화까지 영향을 줄 정도다.

키움은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준

PO) 승리에 이어 SK와 PO 1:2차전을 모두 승리했다. 단 1승만 더하면 한국시리즈(KS)에 진출한다.

포스트시즌(PS)에서 장 감독의 전술은 혁신적이다. 그리고 이같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 시즌 때부터 세밀하게 준비한 전략이 응축돼있다. 키움은 총 30명의 엔트리 중 절반이 가까운 14명을 투수로 선택했다. 그리고 불펜 핵심 전력에의 의존하지 않고 '불펜 전원 필승조'라는 새로운 야구로 KS에 도전하고 있다.

전력가리는 평가가 따르는 경영업 감독
조차 "놀랍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팀
들은 시즌 때보다 PS에서 볼펜 필승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에 따
른 체력문제, 구위 감소가 승부에 큰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장 감독은 1차전 8명,
2차전 9명을 투입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다.

볼펜 최고의 강속구 투수 조상우를 마지막 이닝이 아닌 승부처에 투입하는 과감한 운용도 시즌 때부터 가을야구를 위해 준비해 왔다. 장 감독은 “엔트리에 투수 14명이 많다고 하지만 수렴한 전략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수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키움 투수들 상당수는 타 팀이었다면 더 나은 상황에 서 던져야 했겠지만 역할이 분명하고 모두 중용되는 상황에서 더 자신감있는 모습으로 투구하고 있다.

장 감독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지만 2차전에서 삼진 4개로 침묵한 제리 샌즈를 끝까지 기용하는 등 믿음의 야구도 보여주고 있다. 코치는 아니었지만 프런트시절 선수들에게 '따뜻한 형님'으로 불렸던 성품도 감독으로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키움 장정석 감독은 불펜 보직 파피라는 혁신적인 전술로 2019시즌 가을야구를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상대 사령탑은 놀라고 팬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감독 3년차에 맞는 두 번째 가을무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조선 DB

붉은 유니폼 입는 SK '리버스 스윙' 해낼까

SK 와이번스가 '왕조 시절'을 상징하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오프(PO) 반격에 나선다.

승리의 가운데이 절실하다. 안방에서 열린 킴을 히어로즈와의 PO 1·2차전에서 내리 패배를 당한 SK다. 한국시리즈(KS) 진출을 위해서는 3연승으로 '리버스 스윕'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에 1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시작되는 3차전에서 선수단은 당초 계획대로 기존의 원정 선수들 대신 붉은 유니폼을 착용한다. 2000년대 말 이 유니폼을 입고 가무대를 휩쓸었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왕조의 주축 멤버였던 김강민, 박정권, 박희수 등은 2019년 PO 엔트리에 포함돼 후배들을 이끄는 중이다. 이들의 가슴 한편에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연출해낸 영광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박정권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참 많은 경기에서 이겼다. 상대편 선수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줬던 유니폼”이라고 회상했다.

1루 주루코치로 SK의 가을을 함께하는 조동화 코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조 코치는 “붉은 유니폼을 입고 팀이 첫 우승을 거뒀다. 좋은 기억이 많다”며 “붉은 유니폼을 입으면 저절로 어깨가 펴진다”고 강조했다.

베테랑 투수 박희수의 '투지'도 불타올랐다. 그는 "붉은 유니폼을 입으면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긴다. 만약 경기에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더 파이팅 넘치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158km 던진 조상우 “이제 전광판 안 쳐다봐요”
 〈키움〉

〈키움〉

구속·RPM보다 제구에 올인

“그때는 진짜 공 한 개 던지고 바로 전광판을 쳐다봤어요.”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25)는 KBO리그에서도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유명하다. 그가 빠른 공을 던지고 나면 전광판에는 거의 매번 시속 150km 이상의 구속이 찍힌다. LG 트윈스와와 준플레이오프(준P)



키움 조상우

그런데 정작 조상우 본인은 전광판에 찍히는 구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상우는 “신인 때는 공을 한 개 던지고 전광판을 보고, 또 공 한 개를 던지고 전광판을 봤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습관을 버린 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 오래 걷게 만들었다. 역시 구축보다는 제구가 때문에 굳이 전광판을 쳐다볼 이유가 없더라”고 전했다.

데이터 야구의 도래로 최근 강속구 투수들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된 분당 회전수(RPM)도 그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조상우는 빠른 공이 꾸준하게 2600RPM 전후를 기

록하는데, 이는 KBO리그 최고 수준이다.

조상우는 “내가 정통 우완 투수였다면, RPM을 크게 신경 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내리찍어 던지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다. 거의 쓰리쿼터 형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회전수가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전수보다는 릴리스 포인트를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오는 데 집중한다. 타자 앞에 최대한 가까이 릴리스 포인트를 놓아야 공을 제치고 편하고 구위와 제구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NAVER 삼선미 나주곰탕

30년 전통! 그 명성과 맛이 성공입니다

삼선미
三膳味
나주곰탕
6,000원

소자본 창업 대한민국 대표 국밥브랜드
업종전환/신규창업 환영(무이자대출)

2019년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국밥과는 비교 불가!
최고의 가격, 맛, 영양, 품질로 승부합니다

경기 불황에는 국밥집이 최고조

초보자들도 손쉬운 운영으로 엄청난 매출,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고객들로부터 검증된 메뉴 외식사업 성공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본사 생식품목을 직접 공급하여 가맹점 이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성공 브랜드와 인기 메뉴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업종 전환
본사에서 선투자

한우나주곰탕 6,000

한우소머리국밥 7,000

내장탕 7,000

육개장 6,000

갈비탕 10,000

갈비찜 18,000

한우소머리수육 15,000

소곰청전골 18,000

10월 오픈예정점 | 충북보은점, 목포대성점, 경북대점, 부천도당점, 위례점

가맹/취급점 문의

☎1588-3892